IBM, 500건의 특허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무상제공

2005년 1월 10일, 미국 특허 취득 건수에 있어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IBM은 500건의 특허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 동 발표는 미국 특허상표청이 2004년 미국특허 최다 취득 기관에 대한 순위를 공개한 날에 이루어짐.

IBM의 500건 특허 무상제공 결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제조업체의 지재권 전략의 주요 변화인 것과 동시에 하이테크 산업에 있어서의 도전을 의미한다.

IBM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IBM의 결정은 기술혁신을 촉진함에 있어서 다른 기업들도 특허포트폴리오를 개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세계에서 선두적인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IBM은 다른 기업들이 오픈라이센싱 프로그램 하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도록 도움으로써 이득을 얻고 있다.

IBM이 무상제공하겠다고 발표한 500건의 특허는 저장 관리, 동시다중 처리(multi-processing), 이미지처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킹 및 전자거래 등의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IBM이 발표한 500건의 특허는 저장관리, 동시다중처리, 이미지처리, 데이터베이스관리, 네트워킹 및 전자거래 등의 관련 기술 포함

한편, 특허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는 이러한 IBM의 무상제공 결정은 위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 이유는 IBM이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지침을 통과시키기 위해 EU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등 유럽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범위 확대에 있어서의 주요 추진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IBM의 결정은 오픈소스 업계를 달래고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이번 IBM의 500건 무상 제공 결정이 과연 단순한 기업 광고 전략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에 있어서 IBM이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유럽의 새로운 특허규정,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분열시킴

유럽연합은 지난해 소프트웨어 산업계를 분열시켰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특허 규정이 올해에도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아직까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럽연합은 동 규정이 이미 유럽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의 특허법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에 반대하는 소기업과 개인발명가들은 동 규정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노키아 같은 대기업들이 순수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따라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제출된 법안(software patent directive라고 불리움)은 충전기능을 향상시키거나 텔레비전 스크린의 영상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이 '기술적 기여'를 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특허를 허용하게 된다.

법안의 반대자들은 동 규정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시스템과 같은 순수한 소프트웨어까지 특허권을 허용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러한 논쟁은 2006년까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과학기술정보단체, 한국특허초록(KOREAPAT)을 영문으로 제공

미국 ACS, 일본 JST 등과 함께 국제적인 과학기술정보 제공 네트워크인 STN(the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Network) International을 구성하고 있는 독일 Fiz Karlsruhe 정보센터는 한국특허초록(KOREAPAT)의 영문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특허초록의 영문자료는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것으로써 197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에서 심사된 특허출원(B-documents)과 2000년 이후의 아직 심사되지 않은 특허출원(A-documents)을 포함한다. 동 초록은 발명자와 수탁자에 대한 자료, 공개정보, 국제특허분류 코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초록에는 약 44만 개의 대표 도면을 포함하여, 현재 약 48만 5천건 이상의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기록들은 일년에 5회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 기록들은 한국에서 공개되고 약 4개월 후에 제공될 것이다.

이번 한국특허요약 영문자료의 제공으로 STN International은 일본 JAPIO와 함께 아시아의 매우 중요한 특허정보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공 지식재산권 연구센터

발특2005/1